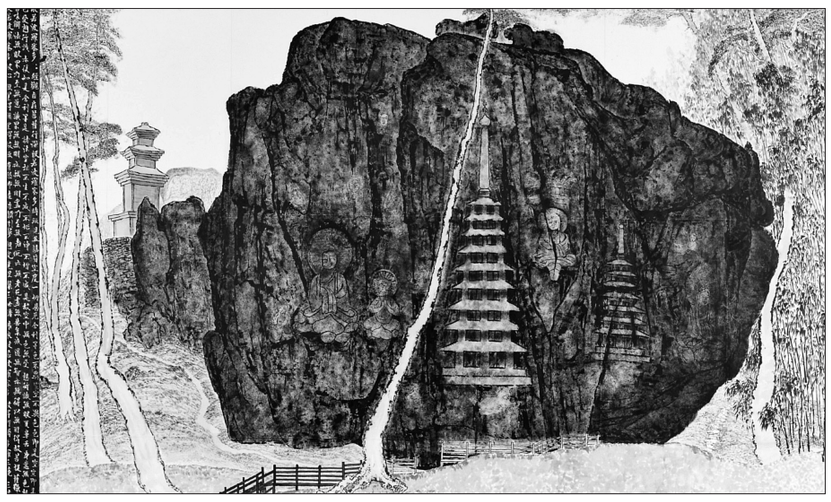
설에도 쉬지 않는 예술 잔치로 '힐링'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8년 새해가 이미 밝았지만 우리 민족이 마음으로 여는 새해 첫 날은 따로 있다. 설이다. 그래서 이 날은 모두 새로운 한 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고 여러 가지 준비로 손발이 분주한 날이다.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보자.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박대성 作, 부처바위(옥룡암) 271×503cm

설날 어울리는 전시들

박대성 개인전
'수묵에서 모더니즘을 찾다'
인사아트센터 2월 7일~3월 4일까지

수묵화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궈온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수묵에서 모더니즘을 찾았다'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2월 7일(수)부터 3월 4일(일)까지 열린다.

시(詩)·서(書)·화(畵)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는 문인화적 사상과는 달리, 박대성은 '서'를 '글'이라기보다는 사물의 형태와 의미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서 접근한다. 따라서 그는 '서'의 '선'에 주목하여 사물을 최대한 절제해 표현하는 반추상적인 표현방법을 작품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풍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한 화면에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왜곡함으로써 성격이나 의미를 전달하고 사물의 본질을 찾는데 주력한 작업들을 볼 수 있다.

폭이 5m에 이르는 대작들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긴장감과 힘찬 기운을 쏟아내는데, 이는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운생동이 활약하는 현대적 수묵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에서는 박대성의 서예작품과 함께 경주 불국사 시리즈 등 신작 100여점이 선보이며, 작가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한국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대성 화백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수묵을 현대화 한다는 점에서, 겸재에서 소정과 청전으로 이어지는 실경산수의 계보를 잇고 있다. 한국화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며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동양화단에서 이변을 일으켰다.

예술의 전당
'동아시아 필묵의 힘'
서예박물관 2층전관 2월 9일~4월 1일

예술의전당은 2월 9일(금)부터 4월 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념 한중일 서예전 '동아시아 필묵의 힘 East Asia Stroke'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통 언어인 서(書)를 키워드로 한 한중일 작가 75명의 엄선된 작품을 통해 동아시아 문예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21세기 동아시아 글씨의 횡단면을 그 어느 전시 때보다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한중일 최고 수준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개막식과 포럼이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예박물관 2층에서 개최되며 한중일 서예관계자 3인(권창륜, 가야하라 스스무, 쩡라이더)이 전시의 의의와 방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복을 기원하는 달력 展
롯데갤러리 안양점 2월 8일~3월 4일

롯데백화점은 2018년 무술년 설날을 맞아 '복을 기원하는 달력-골드, 리트리버' 展을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롯데갤러리 안양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8년 황금 개띠, 무술년의 의미를 담아 제작된 디자인 달력 전시로, '오늘을 디자인하다 1일 1D'라는 테마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부터 앞으로 가능성이 기대되는 신진 디자이너들까지 개성 있는 작업을 선보이는 12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영동군 황간역
'설맞이 전통혼례한복 작품전'
2월 1일~28일

충북 황간역은 2월 28일까지 전통 한복을 주제로 한 결혼 의상과 소품을 소개하는 '설맞이 전통혼례한복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옷 작가 박지원 씨가 만든 전통 웨딩한복과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퓨전 결혼용 한복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황간역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 철도 여행객에게 사라져가는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함께 고향의 포근한 정취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체험 한마당

4대 고궁·종묘 등
무료개방·체험 마당

문화재청은 설 연휴 동안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창덕궁 후원은 제외) 또한 '평창 여행의 달'인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4대 고궁과 종묘의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이번 4대궁·종묘의 관람료 할인과 설 연휴 무료개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의 성공을 기원하고, 아울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민속촌 진행 '지신밟기'

더불어 문화재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궁에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설맞이 문화행사도 마련했다.

경복궁 집경당에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각 아궁이에 불을 피워 온돌을 체험하며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온돌방 체험과 세배 드리기 행사'가 열린다. 또한 덕수궁과 영릉(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기도 여주시, 2.15.~18.),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 2.15.~17.),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군, 2.15.~17.)을 방문하면 윷놀이·투호 등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설 명절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관리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복궁관리소(02-3700-3914) △덕수궁관리소(02-751-0740) △세종대왕유적관리소(031-885-3123 △현충사관리소(041-539-4603) △칠백의총관리소(041-753-8702)

한국민속촌-'설맞이 복잔치'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은 2월 10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설맞이 복잔치'를 진행한다.

대나무, 생솔가지 등을 쌓아올린 달집을 불태우며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민속촌 농악단의 농악놀이와 함께 진행되는 '지신밟기',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집안에 복조리를 달았던 풍습을 놀이로 체험하는 스탬프 투어 '복조리를 찾아라', 액운을 막기 위한 세화 그리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 마당이 진행된다. 또한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도 풍성하다. 윷놀이, 투호, 칠교 등이 관아 앞 광장에서 매일 진행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제주에서 왕후를 만나다', '복을 기원하는 연 만들기', '캘리그라피 덕담 써주기', '추억의 사진 콘테스트', '궁중한복 전시' 등이 펼쳐지는 '2018년 설 민속한마당'을 개최한다.

△전남 고흥분청박물관은 설 연휴 특별개관을 하고 '소원나무 빌기', '복주머니 만들기', '전통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풍물놀이가 진행되는 '설맞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2018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진행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만사형통을 염원하는 '십이지신문양 찍기' 등 '설맞이 민속문화 한마당'을 펼친다. 야외 마당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박재완 기자

우리의 소리 공연들

국립국악원 – '한판놀개'
예악당 16일~17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은 무술년을 맞아 설 당일인 16일(금)과 17일(토) 오후 3시부터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설맞이 대공연 '한판놀개'를 개최한다.

소리꾼 김용우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을 비롯해 한국 대중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와 2017년 제6회 국악동요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리꽃심중창단'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희망찬 새해를 여는 모듬북 합주와 새해에는 좋은 기운만 가득하길 바라는 액맥이타령으로 문을 연다. 이어서 소리꾼 김용우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완벽한 화음과 샌드아트가 어우러지며, 아카펠라로 듣고, 샌드아트로 보는 우리 민요의 환상적인 무대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판굿 공연 장면

이번 공연은 무술년 개띠해를 맞아 개띠 관람객과 한복 착용 관객, 3대가 함께하는 관객들에겐 입장료 할인 등 '천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공연 전에는 국립국악원 마당에서 떡메치기, 투호, 제기차기와 같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공연 후엔 관람객들에게 한과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통음악의 집 락궁의 '울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월 17일(토) 오후 3시

전통음악의 집 락궁은 2월 17일(토)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울림'이라는 주제로 창작곡과 중주곡 국악실내악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월 토요 상설공연으로 마련한 '우리민속한마당'의 하나인 공연은 우리 국악기로 편성된 국악실내악단으로 신명나는 곡과 잔잔한 곡으로 구성하여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선보인다. 첫무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요 뱃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신뱃놀이'로 시작한다. 이어서 양방언의 FRONTIER, 가야금 2중주 '궁타령의 멋' 대금 독주 곡 'morning' 등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과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 메들리 등 관객들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참 멋을 느낄 수 있는 곡들도 선보인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국립극장 하늘극장 2월 18일까지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다.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2월 18일까지 공연되는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이다.

SNS 중독 심봉사, 할말은 다 하는 당찬 심청, 풍자의 여왕 뺑덕, 국립극장의 명품 마당놀이로 불리며, 국립극장 마당놀이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심청이 온다'가 3년 만에 돌아왔다. 하늘극장 원형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더욱 가까워진 무대로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으며, 마당놀이 특유의 재미와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77일간 63회 예정으로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공연은 이번 연휴 동안이 마지막 일정이다.

박재완 기자

